

■ 노동시장 성과의 지역별 격차는 지속되는가? (김혜원 연구위원)

- 본 연구에서 지역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긴 기간 사이에도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난 10여년의 경험에 따르면 실업률의 지역별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음.
 -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지 않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실업률의 지역별 격차가 유지되는 듯이 보이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시부의 실업률이 높은 점이 착시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임.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실업률의 지역별 격차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지속성을 보이지만, 10년 정도의 비교적 긴 기간 사이에는 지속되지 않음.
- 실업률과 달리 취업자 증가율과 고용율의 지역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음. 취업자 증가율의 지역별 격차가 유지되는 현상은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임.
- 지역별 실업률은 지역간 취업자 증가율의 차이, 지역간 노동이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데, 지역간 노동이동의 경우 1999년~2003년 사이에 지역 내 채용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임. 이러한 이주의 효과가 10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될 경우, 지역별 실업률에 지역간 노동이동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지역간 노동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됨.

문의처 :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

Tel : 782-0310 E-mail : hwkim@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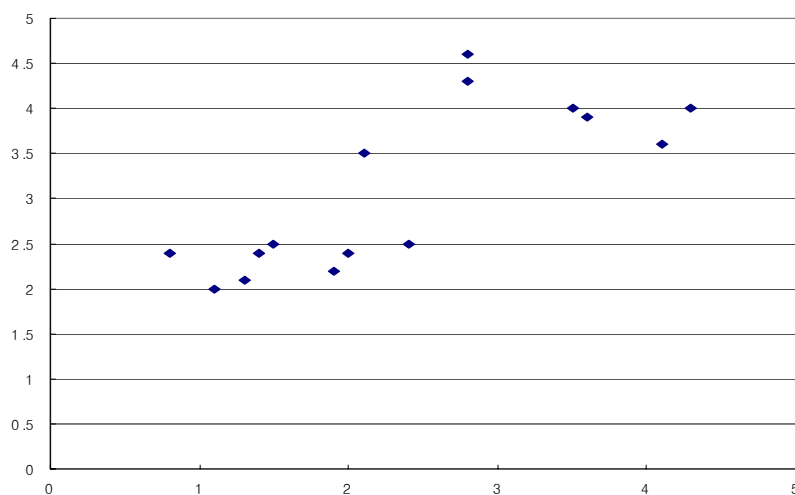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성과의 지역별 격차는 지속되는가

담 당 자	김혜원 연구위원
전 화	02) 782-0310

- 기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성과의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고,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긴 기간 사이에도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음.
 - 노동시장 성과는 실업률, 취업자 증가율, 고용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실업률의 지역별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음.
 - <그림 1>은 1994년과 2004년의 지역별 실업률을 점산도로 그린 것인데, 실업률의 지역별 격차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듯이 보임. 즉, 1994년에 높은 실업률을 보였던 지역이 2004년에도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다는 인상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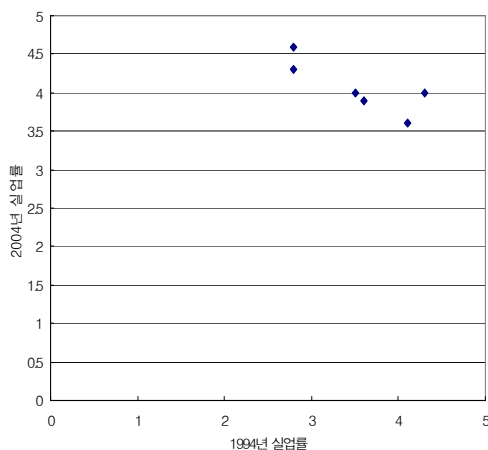
<그림 1> 지역간 실업률 차이의 장기 지속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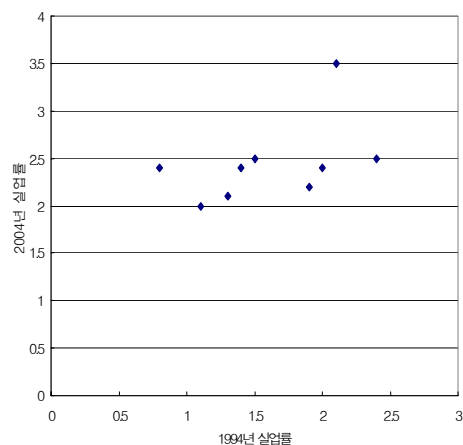
- 시도 단위의 지역은 대도시 중심의 6개 광역시 단위 지역(울산 제외)과 중소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9개 도 단위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특성에서 도 단위 지역과 대도시 지역은 구별되며 특히 대도시의 실업률이 높음.
- <그림 2>는 광역시 단위 지역만의 1994년과 2004년의 지역별 실업률을 점산도로 그린 것이며 <그림 3>은 도 단위 지역을 도시한 것인데, 실업률의 지역별 격차가 장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됨.
- 실업률의 지역별 격차는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음. 실업률의 지역별 격차는 지역내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지역내 일자리증가율의 변화, 지역간 노동이동 등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소됨.

<그림 2> 광역시 지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도 단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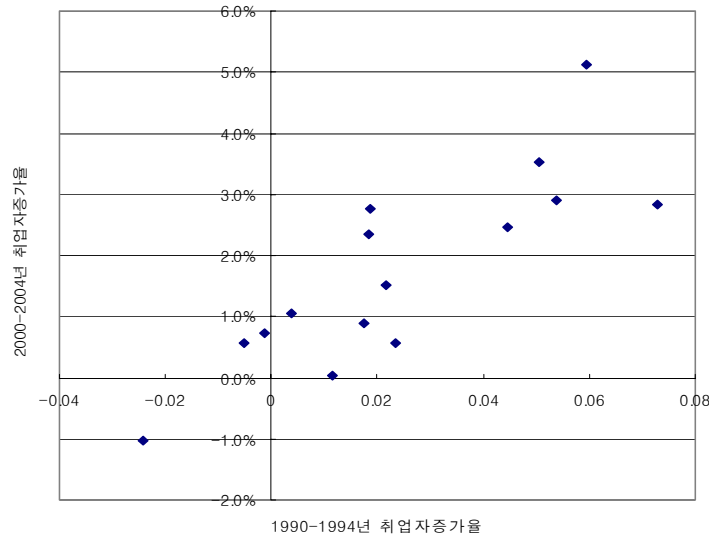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증가율과 고용율의 지역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음.

- <그림 4>는 1994년과 2004년의 지역별 취업자 증가율을 점산도로 그린 것인데, 취업자 증가율의 지역별 격차가 장기적으로 유지됨.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고용율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취업자 증가율의 지역별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됨.

<그림 4> 취업자 증가율의 지역별 격차의 지속성



- 지역별 실업률은 지역간 취업자 증가율의 차이, 지역간 노동이동 등에 의해 영향 받음.
 -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일자리창출이 많고 일자리소멸이 적은 지역이며, 취업자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일자리창출이 적고 일자리소멸이 많은 지역임. 특히 취업자 증가율의 지역별 차이는 일자리소멸의 지역별 차이보다 주로 일자리창출의 지역별 차이에 의해 발생함.
 - 지역간 노동이동의 경우, 연간 이동량이 절대 수준에서 큰 편은 아닌데, 고용보험DB 원자료에 따르면 1999년~2003년 사이에 지역 내 채용 중에서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임.
 - 그러나 이주의 효과가 10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될 경우 지역별 실업률에 지역간 노동이동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음. 흥미로운 점은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지역간 노동이동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표 1> 채용량 대비 지역간 노동이동에 의한 채용 비율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총합계
서울	2.0	2.1	2.2	2.5	3.0	2.3
부산	1.9	1.8	2.1	2.4	2.8	2.2
대구	2.2	1.9	2.3	2.6	3.0	2.4
인천	3.1	3.2	3.7	3.8	4.7	3.7
광주	2.2	2.6	2.8	3.0	3.8	2.9
대전	2.2	2.5	2.8	3.2	4.2	3.0
울산	2.1	2.7	2.6	3.3	3.7	2.9
경기	2.9	3.0	3.6	4.0	4.6	3.6
강원	1.9	2.0	2.5	2.7	3.5	2.5
충북	2.2	2.1	2.4	2.8	3.7	2.6
충남	2.9	2.7	3.1	3.6	4.6	3.4
전북	1.2	1.3	1.6	1.8	2.3	1.6
전남	2.1	2.2	2.6	3.1	4.0	2.8
경북	2.1	2.2	2.4	2.7	3.5	2.5
경남	1.9	2.0	2.3	2.6	3.2	2.4
제주	0.9	1.0	1.1	1.5	1.8	1.2
총합계	2.2	2.3	2.6	2.9	3.5	2.7

자료: 고용보험DB 원자료

○ 시사점

- 지역노동시장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업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면 구체적이면서 혁신적인 정책들이 개발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노동시장정책은 정확한 지역노동시장의 진단에 기초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농촌 지역 간에는 노동시장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산업특성, 인구학적 구조, 인적자원 특성에 따라 지역간 노동시장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정책방향과 수단도 달라져야 함.
- 실업률의 지역별 격차가 장기적으로 어떤 요인들(지역간 일자리창출, 일자리소멸, 노동자의 이주 등)에 의해 해소되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간 실업률 차이를 줄이려는 정책은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중단기적 목표와 수단이 결정되어야 함.